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14화 : 고지를 점령하라

모든 게 다 비현실적이었다. 보석 용단으로 뒤덮인 봄밤도. 그리고 앞에 서있는 이 여자도.

연희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아주 얇은 분홍빛 치마에 개나리를 녹여놓은 듯 청초해 보이는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무명옷만 입어도 빛나던 얼굴이 오늘따라 더 해사해 보였다.

이윽고 현세의 호흡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기 시작했다.

“여, 여기는 어떤 일입니까? 두령께 전할 말씀이라도?”

“실은... 널 보러 왔어.”

현세의 동공이 가늘게 떨렸다. 연희가 말하는 ‘너’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빠근해지는 느낌이었다.

예상했던 바였지만, 역시나 이전의 현세는 연희와 친분이 남다른 것 같았다.

“그랬...군요. 챙겨주신 환약은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과거의 현세가 돌아올 리 만무했지만, 저 여자에게는 작은 걱정조차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제 속에 든 영혼이 이준이라는 사실에 뼈가 다 사무쳤다.

한데도 연희는 갓 생긴 상처와 흉터로 얼룩진 현세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대도 괜찮아, 현세야.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푸른 달빛에 반사된 연희의 눈물이 별처럼 반짝거렸다. 바르르 떨어지는 그녀의 입술 사이로 들려오는 자신의 이름이 이다지도 심금을 울릴 수 있을까, 싶었다.

현세는 제 손을 붙들고 있는 연희의 손길을 맞잡을 수도, 그렇다고 뿌리칠 수도 없었다. 순간, 근근이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미쳤다고 생각하라지. 현세는 그냥 다 말해버리기로 작정했다.

“연희씨, 저는 그쪽이 아는 현세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정이준이

라는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저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냈 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현세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연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선선한 밤공기에 취한 탓인지, 제멋대로 널뛰는 열여덟의 혈기 때문인지 몰라도 두 눈두덩이 불에 덴 듯 뜨겁 게 달아올랐다.

이윽고 연희의 손등에 툭, 하고 물방울이 떨어졌다. 연희는 물 자국이 난 제 손등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

“...”

시공이 멈춘 듯,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늘한 빛을 내리는 달과 저들끼리 소곤거리는 별들만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밤이었다.

연희는 꽃잎위에 앉아 날갯짓하는 나비처럼 아주 조곤한 음성으로 말했다.

“알고 있었어, 네가 현세가 아니라는 것쯤은. 한데, 현세야. 네가 무엇이 되든 난 상관없어. 그저 살아서 돌아와 주기만 하면 돼.”

알고 있었다고? 줄곧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던 현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렸다.

‘어째서...’

현세는 적잖이 당황했다. 연희는 전과 다르지 않게 온화한 모습 그대로였다. 누구라도 놀랄법한 고백에도 그녀는 의연하기만 했다.

그래서 그런 거였나. 이제야 모든 게 납득이 갔다. 자신보다 서너 살은 많으면서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온 이유가.

줄곧 입안을 맴돌던 말이 한숨처럼 빠져나왔다.

“연희씨...”

자신을 바라보는 연희의 눈빛이 너무나 따스해서 그대로 몸이 붕 떠버릴 것만 같았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던 어린 시절 이준의 삶까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어떤 편견도 없이 자신을 성심성의껏 보살펴 주었다. 사람들이 저를 더러 미쳤다고 수군거릴 때도 웃음으로 넘기면서 말이다.

현세는 몹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연희씨도 무사히 지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무척 많아요.”

“네, 꼭 그리 할게요. 잘 다녀와요.”

그녀는 현세가 아닌 이준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곳 조선에서 유일하게 그를 알아봐 준 여인이 보내는 진심이기도 했다.

연희는 제 머리 끝에서 달랑거리는 새뿔은 땀기를 풀어 현세의 손위에 올렸다. 새것처럼 반질거리는 땀기는 한눈에 봐도 무척 아끼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현세는 그것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무슨 신파극이냐며 온 몸의 닭살을 털어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매순간의 소중함과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행여나 구겨질까, 현세는 고이 접은 땀기를 품속에 집어넣었다.

‘돌아오는 날 직접 매어주겠어.’

동학농민군은 망설임 없이 전라 감영이 있는 전주로 향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중앙군과 전라도 관군들은 약 1,500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남하를 시작했다.

“퇴각하라! 동학농민군은 전부 퇴각하라!”

“퇴로를 확보하라!”

봉준의 계획대로 농민군의 패전 소식은 감영군의 핵심 근거지까지 전해졌다. 벌써 승리감에 도취된 감영군과 친군무남영(親軍武南營 : 조선 고종(高宗) 때에 설치한 친군영(親軍營) 중 하나로, 고종 30년(1893)에 전라도 전주(全州)에 설치) 병력은 농민군의 씨를 말리기 위해 정읍 황토현으로 치달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봉준은 무릎 높이만한 탁자위에 누르스름한 종이를 펼쳤다.

“이짝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조총부대는 어찌할 터?”

현세는 망설임 없이 황토현의 지형을 하나하나 짚으며 대답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 매복을 둘 겁니다.”

황토현 지리에 삼각형 모양의 줄이 그어졌다. 현세는 꼭짓점 세 부분을 표시하며 설명을 이었다.

“전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위치라서 ‘엎드려 싸’를 하기에 적절합니다. 게다가 올라가는 길이 험준하고 발도 푹푹 빠지는 상태라 관군도 쉽게 오르지 못 할 겁니다.”

줄곧 긴장으로 굳어버린 얼굴이었지만, 봉준의 눈빛에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애초부터 이곳 황토현을 격전지의 첫 번째 장소로 꼽아두었다.

적들은 이미 농민군이 수세에 밀려 피신하는 걸절이 취급을 하고 있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우리는 적을 알되, 적은 우리를 모르니 이 얼마나 유리한 싸움인가.

봉준은 결의에 찬 음성으로 한 자, 한 자 힘주어 말했다.

“농민군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 이걸 매복이면서도 기습이나 다름없는 싸움이 될 것이여.”

개남은 주먹을 한껏 들어 보이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죽창 부대는 내게 맡겨둬! 깡그리 벌집으로 만들어 놓을라니께!”

“개남 아재.”

개남을 부르는 현세의 어조에는 예전처럼 장난기가 깃들어 있지 않았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어쩐지 봄날의 새순이 저만치 자라난 느낌이었다.

개남은 그런 현세가 슝슝하면서도 대견했다.

“왜 불러.”

“책 엮어둔 거 꼭 받쳐 입어요. 괜히 총 맞지 말고.”

현세가 걱정덩어리를 툭 던지자, 개남의 기차화통 뚜껑이 열렸다.

“아가 네 걱정이나 혀. 시방 무슨 다 늙은 할아방구같은 면상을 허고있냐, 너는.”

정말 그랬다. 요 며칠 산을 오르고 들을 헤집고 다녀서인지 현세의 안색이 무척 거칠해보였다. 열여덟의 나이에 짙어진 짐이 결코 가볍지 않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럼에도 현세는 유머를 잊지 않으려 했다.

“이 얼굴이 어딜 봐서 할아방구예요, 아재? 완전 조각미남이구만.”

“아따, 고 잘난 쌍판대기 얻다 써먹게?”

개남은 별 미친놈 다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화중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철딱서니를 어찌면 좋겠냐는 신호가 그대로 전해졌다.

화중은 현세의 허리춤에 매달아둔 붉은 비단을 흘깃거리며 입매를 끌어올렸다.

“기왕지사 잘난 쌍판이 낫지 않겠어요, 성님? 관군도 반해서 요짜 편을 들지 누가 알겠소.”

“뭣이? 화중이 너꺼정 그런 소릴 혀?”

현세역시 놀란 눈으로 화중에게 시선을 돌렸다. 진지함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던 화중의 입에서 나뭇의 농이 튀어나온 것이다. 실로 놀라웠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처남과 매제사이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

현세는 허리춤에 매어둔 땡기를 의식하며 운을 뗐다.

“봉 형, 선두를 맡으셨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엄호 할 테니 믿어주십쇼.”

봉준은 현세의 어깨에 거칠어진 손을 올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결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손길이었다. 현세는 봉준에게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를 체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남자의 손에 농민군의 운명이 달려있었다.

개남과 화중, 그리고 현세는 뜨거워진 눈동자를 들어 올리며 봉준을 응시했다.

“영준아.”

“성님.”

“봉 형.”

봉준은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우리는 꼭 승리 할 것이여.”

새벽별이 고개를 들 무렵, 황토재 마루에 매복한 농민군들은 들끓는 숨결을 애써 잠재우며 기습을 준비했다. 축축하게 젖은 땅이 짚신을 가로질러 들어와 발가락을 녹

진하게 만들었지만 한 톨도 개의치 않았다.

이런 질퍽거리는 환경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곧이어 맞은편 매복지점에서 불꽃이 두 번 일었다. 부싷돌을 쳐서 신호를 주고받기로 한 터라 현세는 그 신호를 곧바로 읽어낼 수 있었다.

현세는 새벽 공기만큼이나 낮은 음성으로 속삭였다.

“공격 준비”

현세 옆에 엮드려있던 성범은 마찬가지로 부싷돌을 두 번 쳤다. 반대편 매복지점까지 신호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삼각을 이루는 동학군이 전부 혼연일체가 되자, 현세는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예비 병력에게 곧장 신호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준비해 둔 기름통 안이 화르륵, 불씨를 머금기 시작했다. 현세를 비롯한 수십 명의 사수들은 화살촉 대신 장전해 둔 목화솜 뭉치에 불씨를 옮겨주었다.

“발사!”

삼시간에 별천지가 된 화살촉들은 불벼락이 되어 관군이 밀집한 주둔지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곧이어 나무와 천으로 꾸러놓은 막사 곳곳에 화염불이 피어올랐다.

관군들의 웅성대던 소음이 비명소리로 뒤바뀌는 건 한순간이었다.

“기습이다! 어서 대열을 갖추라!”

“불이야!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라!”

현세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우왕좌왕하는 관군들을 굽어보았다.

이제 우리들 차례였다.

활시위를 당기던 예비 병력들은 일제히 활을 내려놓고 조총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 사수들 옆으로 각기 흩어졌다. 손발이 이토록 잘 맞는 데는 피나는 훈련이 있었으려다.

현세는 오른쪽 눈으로 조준 각을 맞추며 왼쪽 눈을 가늘게 떴다. 봉준의 병력과 개남의 부대가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동시에 화력을 개방할 만발의 준비를 갖추었다.

“역당들이다! 역당들이 몰려온다!”

방아쇠에 닿은 현세의 손가락에 긴장이 바짝 들어갔다.

‘저 놈이로군.’

드디어 관군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모습을 드러냈다. 잠이라도 자빠져 잤는지 흐트러진 행색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현세는 들숨을 길게 조절하며 짹 다문 잇새로 미세하게 호흡을 뱉어냈다.

‘지금이다!’

방아쇠를 당기자, 총부리에서 탕! 소리가 울렸다. 현세가 쏜 첫 발에 감영군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픽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삼각주를 이루던 매복의 총격이 일제히 쏟아졌다.

혼비백산이 된 관군들은 물벼락을 만난 개미떼처럼 이리저리 흩어지기 바빴다. 이젠 봉준이 활약할 차례였다.

“호남창의군! 총 공격하라!”

과연 우레와 같은 봉준의 외침을 기점으로 죽창을 든 동학농민군들의 함성이 황토현을 쥐고 흔들었다.

현세는 조총을 재장전하며 봉준을 엄호하기 위해 시야를 좁혔다.

“조총부대, 격발 준비!”